

영어의 굴절형태론에 대하여

—어휘론적 접근—

이 봉 형

모든 언어의 단어형성(word-formation) 과정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두 가지 가설을 세워 볼 수 있다.

- 1) a. 모든 단어형성규칙은 통사규칙에 포함된다.
- b. 모든 단어형성규칙은 어휘목록(Lexicon)에 포함된다.

1a)는 '단어'(Word) 내부구조와 문장의 내부구조를 구별하지 않고 동일한 것으로 보는 전통적인 입장이며, 1b)는 단어와 문장을 상이한 성격을 지닌 별개의 범주로서 파악하고자 하는 최근의 어휘형태론(Lexical Morphology)의 입장이다. 여기에서 문제는 1a), 1b) 어느 주장도 선협적으로 당연한 사실로서 정당화될 수 없으며 구체적인 언어사실을 바탕으로 타당성을 평가해야 한다는 사실에 있다. 따라서 위 두 입장 외에도 단어형성은 일부는 통사적으로, 일부는 어휘목록에서 이루어진다는 등의 설명도 가능할 수 있다.

본 논문은 어휘형태론의 입장에서 단어형성 과정 중에서 영어의 굴절형태론(inflexional morphology)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특성을 살펴봄으로써 전통적인 통사론적 설명이나 현재의 어휘론적 입장이 안고 있는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한다. 또한 이에 따른 단어형성의 그 밖의 문제점들을 재고하는 데 목표를 두고 있다.

I. 어휘목록과 굴절어미 (Inflexional Affixes)

현대영어의 굴절어미변화는 고대영어나 그 밖의 굴절언어에 비하면 매우 간단하다. 즉 동사의 활용(conjugation)에는 -s(3인칭, 단수, 현재), 과거, 과거분사형 어미, -ing형이 있으며, 명사의 격변화어미와 복수형, 형용사의 비교급, 최상급 어미 -er/-est 등의 곡용(declension)이 그 전부이다. 본 장에서는 이러한 굴절어미변화를 단어형성의 입장에서 고찰해 보고자 한다.

1. 수(Number). 여기에서는 명사의 복수화 어형변화 뿐만 아니라 3인칭 단수 현재형 동사 활용어미 -s를 명사의 수와 관련된 것으로 보고 같이 다루겠다.¹⁾ 다음 복합명사들(compound nouns)을 보자.

2) a. plainsman
roundsman

b. batsman
huntzman

1) 어휘형태론의 입장에서 Beard (1982)는 현대영어의 '복수화'를 실제 많은 예를 들어 복수어형변화가 어휘목록에 속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그 밖의 굴절형태론에 대해서는 뚜렷한 뒷받침도 없이 어휘목록에 속하는 것으로 간주되고 있는 것이 현재의 일반적 입장이다.

pointsman	clansman
backwoodsman	swordsman
hogshead	hartshorn
foolscap	bullseye
sportsman	lambswool

위의 예들은 의미상으로 또는 강제유형으로 볼 때 복합어임에 틀림없다. 다만 2)의 단어들에 제기하는 문제는 복합어 내부에 '규칙적인' 복수형을 지닌 요소가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이다. 다시 말해서 규칙적인 굴절을 거친 단어가 복합어 형성의 입력부가 되고 있는 것이다.²⁾ 또한 위의 복수 형태들은 Mohanan (1981: 45-46)의 주장과는 달리, *archives, arms, auspices, clothes, grassroots, odds* 등과 같은 *pluralia tantum*도 아니다. 왜냐하면 복수형의 의미가 단수형의 의미를 거의 유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더우기 이와 같은 현상은 단순히 예외적인 사실로 처리할 수 없을 정도로 널리 퍼져 있다.

그렇다면 복합어 형성이 어휘목록 영역에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감안하면 명사의 복수화는 필연적으로 어휘삽입 (lexical insertion) 이전에 어휘목록에서 완결되어져야 한다는 결론이 나오게 된다. 물론 일반적으로 복수형 어미는 *bigheads, redskins, best-sellers, wellwishers* 등과 같이 복합어의 접미사 역할을 하기 때문에 어휘형태론에서 복합어 형성은 복수화를 선행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있다. 이러한 어휘형태론의 level 간의 순서 문제는 제 II 장에서 다루기로 하고, 다만 여기서 지적하고 싶은 사항은 복합어 내부에 나타나는 복수형 어형변화는 어휘목록에서 일어난다는 점이다.

그러나 문법의 모든 수(number)를 어휘론적 입장에서 다루려 할 경우 다음 문장은 설명이 불가능하다.

- 3) a. The selfish man was great *dramatist*.
 a'. *The selfish man was the great *dramatists*.
 b. The scientist received *Nobel Prize*.
 b'. The scientist received *Nobel Prizes*.

3b), 3b') 문장은 모두 올바른 문장인데 3a') 문장은 왜 비문법적인가? 우선 3)의 문장들의 통사적 구조를 살펴보자. 3a), 3a')에서 *dramatist(s)*는 소위 서술명사(predicate noun)인 반면 3b), 3b')의 *Nobel Prize(s)*는 목적어(objective)의 기능을 하고 있다. 이 때 서술명사의 굴절은 여타의 복수형태와는 달리 무의미한(semantically null) 수일치(number agreement) 현상이며 이것은 다음 서술명사들의 수식적 기능(attributive function)과 서술적 기능(predicative function)의 교체현상에서 보는 바와 같은 서술명사의 형용사적 속성에서 유래한다(Quirk et als (1985: 412 참조).

- 4) that *concrete* floor ~ That floor is *concrete*.
 Worcester porcelain ~ This porcelain is *Worcester*.
 those *apple* pies ~ These pies are *apple*.

2) 어원적으로 볼 때 2b)의 단어들은 속격에서 유래한 것이다(Marchand 1969: 67-69 참조). 그러나 공식적으로 볼 때 중요한 점은 어원이 아니라 현재 절자상으로 규칙적인 복수형태와 구분하지 않고 있다는 데 있다. 즉 단어의 재구(restructuring) 현상으로 보아야 마땅하다.

따라서 서술명사의 복수화에 어떤 의미차질 (semantic feature)을 부여할 수 없으므로 이것을 PS rule에 반영시키는 일은 불가능하다. 그러므로 명사의 복수화 중에서 서술명사의 수일치는 어휘삽입규칙 이후에 일어나는 post-lexical level의 현상으로 보아야 마땅하다.³⁾

이와 같은 현상은 다음의 수일치에서도 볼 수 있다.

- 5) a. The pick-pocket deceives the naive kid.
 b. La belle cravate est jolie.
 b'. Les belles cravates sont jolies.

영어의 3인칭 단수 현재 시제에서의 동사의 -s 어형변화(5a)나 불어의 명사, 형용사 곡용(5b, 5b')은 단순히 통사적인 기능을 띤 것이다.

그렇다면 왜 최근의 어휘형태론에서는 이와 같은 수일치 곡용어미 변화까지도 어휘목록에서 일어나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나를 생각해 볼 필요성이 생긴다. 이것은 Lieber (1981: 7)가 주장하고 있듯이 단어형성에 있어서 소위 '단일론' (unified theory)을 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즉 앞에서 언급한 가설 1a), 1b) 중 어느 한 쪽을 택함으로써 일관된 주장을 펴려는 의도의 산물이다. 그러나 3), 5)의 예에서 보았듯이 영어의 수일치는 post-lexical level에서 다루는 것이 어휘목록에서 다루는 것보다 타당성이 있다는 사실이 입증된 이상 위의 단일론은 유지되기 어렵게 되었다. 결론적으로, 굴절형태론 중에서 수일치 현상은 어휘삽입 이후에 일어나므로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어휘형태론에 post-lexical level의 설정이 필요해진다.⁴⁾

2. 격 (Case). 일반적으로 영어의 모든 명사와 대부분의 대명사의 격변화는 공통격 (common case)과 속격 (genitive case)로 나눌 수 있다. 여기에 예외적으로 인칭대명사와 *wh*-대명사는 주격, 목적격, 속격의 격변화를 하고 있다. 그러나 본 항에서는 영어의 모든 명사나 대명사는 잠재적으로 주격, 목적격, 속격 등의 세 가지 격변화를 하는 것으로 간주하겠다. 즉 공통격은 격 중립적 (case-neutral)인 형태로서 문맥에 따라 구체적인 격이 결정된다는 가정에 의거한다. 이것은 다음 문장을 보면 알 수 있다.

- 6) a. *Jesus* publicly proclaimed *bold promises*.
 b. *Jesus* publicly proclaimed *them*.
 c. *He* publicly proclaimed *them*.

6a)의 *Jesus*, *bold promises*의 잠재적 곡용은 6b), 6c)의 대명사에서 실현되고 있다. 그러면 어휘형태론의 입장에서 다음과 같은 속격 명사를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가?

- | | |
|-----------------|----------------|
| 7) death's head | dragon's blood |
| mind's eye | crow's nest |

3) 이러한 이유때문에 Chomsky (1965: 170-84)는 수(number)를 '내재적' (inherent) 수와 '변형규칙에 의해 유도된' (transformationally derived) 수로 구분하고 후자는 단지 통사적 현상으로 간주하고 있다.

4) 본 논문에서의 복수형태의 구분은 pluralia tantum과 그밖의 형태로 구분한 Crockett (1976)과 일치하지 않는다. Crockett가 구분한 '내재적' (inherent) 복수는 *arms*, *alms*, *means*, *pains* 등과 같은 pluralia tantum을 지칭한다.

mare's nest	lion's share
no-man's land	beginner's luck
brewer's yeast	fool's paradise
carpenter's level	potter's wheel
cat's cradle	printer's ink
driver's seat	tailor's chalk
witches' Sabbath	women's college

7)의 예들은 복합어의 기준에 합치하고 있다. 우선 강세유형이 2:1이며 의미상으로 예를 들어 *lion's share*의 경우 전체의 의미는 *lion+share*가 아닌 '가장 큰 몫'을 나타내어 예측이 불가능하다. 그렇다고 이것을 관용구(idiomatic phrase)로 볼 수는 없다. 왜냐하면 *How do you do? Kick the bucket* 등의 관용구는 부분에서 전체의 의미를 예측할 수는 없지만 구(phrase)의 요소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어휘목록에서 명사의 속격화는 복합어 형성에 선행해야 한다는 결론이 나온다. 복합어 형성과 속격화 격변화 간의 순서는 명사의 복수화와 함께 제 II장에서 다시 거론하기로 하고 여기서는 명사의 속격화가 어휘목록 내에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우선 지적하겠다.

이러한 주장은 다음 두 동의적인 구조를 설명하기 위해서도 필요하다.⁵⁾

- 8) a. Dave's drama of Shakespeare
b. a drama of Shakespeare of Dave's

만일 8b)의 기저구조가 8a)라면 8b)는 8a)의 *Dave's*를 오른쪽 끝으로 후치시킴으로써 유도된다. 즉 명사의 속격 격변화는 어휘목록에서 이미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이동규칙만을 적용하면 된다.

그러나 속격 격변화가 통사적으로 결정된다고 가정할 경우는 어떤 문제가 제기되는가? 이 경우는 다음과 같은 부자연스러운 규칙을 설정하지 않을 수 없다.

$$9) \text{ NOUN} \longrightarrow \text{GENITIVE} / \left\{ \begin{array}{l} \text{--- NOUN} \\ \text{PREPOSITION ---} \end{array} \right\} \begin{array}{l} \text{(a)} \\ \text{(b)} \end{array}$$

규칙 9)의 문제점은 9a)와 9b)를 하나의 규칙으로 묶을 수 없다는 사실과 특히 9b)에서 전치사 뒤에 속격뿐이 아니라 목적격 명사도 가능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속격을 어휘론적 입장에서 처리할 경우 이러한 문제는 야기되지 않는다.

사실 확대표준이론(Extended Standard Theory: EST)의 속격 격변화에 대한 다음 가설은 논리적 순환의 모순을 범하고 있다.

- 10) 속격은 어떤 명사가 'Poss(essive)'에 의해 지배(govern)될 때 나타난다.

왜냐하면 통사자질(syntactic feature) 'Poss'는 뒤에 오는 명사가 속격이라는 사실을 나타내

5) 명사의 격변화 중에서 속격이 어휘목록에서 결정된다는 생각은 본래 Siegel (1979)이 지적하고 있다.

고자 하는 ‘허구적인’ 자질인데 구조적으로 이 자질을 어떻게 부여해야 되는가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이 이 추상적 자질에 의존하여 격변화를 유도하고 있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영어의 격변화 중에서 왜 속격만은 탈락되지 않고 잔존해 있나? 이것은 대부분의 언어에서 격변화는 하지 않더라도 복수화 어미는 가지고 있듯이 속격 어형변화가 어휘목록에서 일어남으로써 의미상으로 안정적인 면이 있기 때문일 것이다.

지금까지 우리는 영어의 속격 어형변화는 어휘목록에서 작용한다는 것을 살펴 보았다. 그렇다면 명사의 주격, 목적격의 경우도 어휘목록에서 다루어야 하는가를 보자. 그러나 다음 11)의 문장에서 보는 바와 같이 주격, 목적격 폭용은 이동변형규칙(movement transformational rule)이 적용된 이후에 일어난다.

- 11) a. The river provided *them* with a great amount of vitality of life.
 b. *They* were provided with a great of vitality of life by the river.

위에서 11b)의 *they*는 11a)의 *them*이 이동규칙을 거쳐 유도되었다고 가정할 경우 두 대명사의 격변화는 어휘목록에서 일어날 수 없는 것은 자명하다. 왜냐하면 이동변형규칙은 어휘삽입을 선행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주격, 목적격 어형변화를 속격과 마찬가지로 어휘목록에서 다루려 할 경우 표면형에 실제로 나타나는 주격, 목적격 형태와 이동규칙 적용 이전의 형태와의 차이를 설명하기가 어렵다. 물론 속격의 경우와 같이 복합어 내부에 주격, 목적격 명사 격변화어미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사실이 주격, 목적격이 *postlexical level*에 속한다는 증거는 되지 못한다. 왜냐하면 속격 이외에는 모든 명사가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3. 과거시제(Past Tense) 및 과거분사(Past Participle). 영어 동사의 활용형 어미 가운데 불규칙 변화를 하는 것은 과거시제와 과거분사형에 국한된다. *-ing* 형이나 *-s* 형 변화는 항상 규칙적이다. 동사의 활용형 가운데 이와 같은 독특한 불규칙적인 현상을 설명하기 위해 어휘론적 접근이 타당하다는 가정은 여기에서부터 출발하고 있다. 다시 말해서 어떤 동사가 규칙적인가, 불규칙인가, 만일 불규칙적일 경우 실제 그 형태의 결정은 통사론적인 설명이 불가능하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더 이상의 논증없이 동사의 과거, 과거분사형 활용은 어휘론적 접근이 타당하다고 가정하겠다.

그러나 동사의 모든 과거시제 형태를 어휘목록에서 처리할 수 없음을 다음의 간접화법에서 시제일치(*back-shift*)현상을 보면 알 수 있다.

- 12) a. The police *are* still looking for the murderer.
 b. They said the police *were* still looking for the murderer.

문장 12a)는 12b)에서 종속절이 됨에 따라 현재시제에서 과거시제로 전이되었다. 이러한 두 절(*clause*) 사이의 시제일치는 물론 단순히 통사적 현상으로서 어떠한 의미상의 변동은 수반하지 않으며 어휘삽입규칙 적용 이후에 일어난다. 부연하면 이 경우의 과거형 활용은 *post-lexical level*에서 처리해야 마땅하다.

다음에는 과거형이나 과거분사형이 이중어(*doublet*)로서 나타나는 경우를 살펴보자. 이러한 예는 상당히 널리 퍼져 있다.

13) knelt/kneeled	burnt/burned
dreamt/dreamed	cleft/cleaved
spilt/spilled	learnt/learned
bent/bended	wrapt/wrapped
bereft/bereaved	stopt/stopped
built/builded	spelt/spelled

Kiparsky (1982a, 1982b)는 단어형성에 있어서의 ‘저지효과’ (blocking effect)⁶⁾가 이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적용이 되지 않는다고 설명하고 있다. 즉 두 이중어는 의미상으로 구분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일견 의미상으로 서로 일치된 두 단어가 병존한다는 사실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Bolinger (1975: 219)에 의하면, 음소 /d/로 끝난 단어는 ‘비교적 점증적인’ 동작을 나타내는 반면 음소 /t/로 끝난 단어는 ‘비교적 급작스런’ 동작을 나타내는 경향이 있어 예를 들어 *spilt* 와 *spilled* 를 의미상으로 비교해 보면 전자는 ‘완결된 상태’를, 후자는 ‘과정’을 주로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즉 음성상징(sound symbolism)을 단어형성의 저지효과가 고려할 경우 13)의 이중어들은 단순한 예외적 현상이 아니라 *cook/cooker*, *drill/driller*, *divide/divider* 등과 같이 서로 의미가 구별되기 때문에 저지효과의 제약을 받지 않는 것으로 설명할 수 있다.

이와 유사한 이중어는 다음 과거분사에서서의 /d/, /n/ 교체현상에서 볼 수 있다.

14) hewed/hewn	showed/shown
mowed/mown	sowed/sown
sawed/sawn	strewed/strewn
sewed/sewn	swelled/swollen
shaved/shaven	proved/proven

/d/로 끝난 단어에 비해 /n/으로 끝난 단어가 ‘완결된 동작’을 나타낸다는 생각은 다음 사실에서도 입증된다.

- 15) a. a proven record
 a'. *a proved record
 b. a shaven chin
 b'. *a shaved chin
 c. He has shaved.
 c'. *He has shave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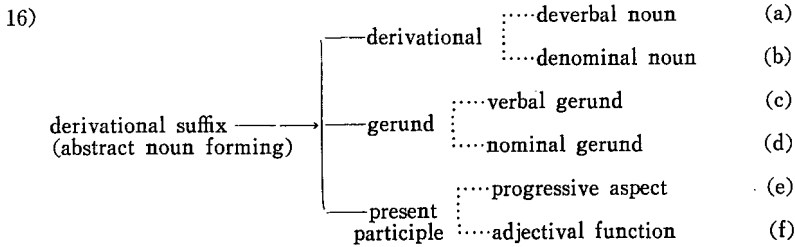
의 미상으로 15a), 15b)는 완성된 상태를 지칭하는 반면 15c)는 동작을 가리키기 때문에 전자의 경우는 /d/ 형태, 후자의 경우는 /n/형이 비문법적 표현으로 나타나고 있다.⁷⁾ 그

6) Kiparsky (1982a, b)의 단어형성의 ‘저지효과’는 Aronoff (1975)의 개념을 보다 폭넓은 개념으로 발전시킨 것으로서 ‘동어의’ 생성을 최대한 억제하는 역할을 하는 제약의 일종이다.

7) 그러나 모든 이중어를 음성상징의 입장에서 설명할 수는 없다. 예를 들어 과거형의 교체 *awaked/awoke*, *thrived/throve*, *biled/bode* 등은 또 다른 시각에서 설명해야 할 것이다.

러므로 단어형성의 저지효과는 음성상징을 고려한 개념이 되어야 한다.

4. 동명사(Gerund)와 현재분사(Present Participle). 현대영어에서 *-ing* 형태로 나타나는 동사의 기능은 매우 다양하여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다. Adams(1973:26)의 주장에 따르면 본래 *-ing(-ung)*는 고대영어에서 '추상명사'를 지칭하는 파생접미사(derivational suffix)였는데 현대영어에 와서 의미분화를 일으켜 굴절어미로도 쓰이게 되었다. 우선 *-ing*의 기능을 아래와 같이 도표화 해 볼 수 있다.



위의 *-ing*형의 일반화(generalization)에 있어 특히 주의해야 할 점은 16a), 16b)의 파생 접미사로서의 기능과 16c), 16d)의 동명사로서의 기능이 분명히 구별된다는 점이다. 다음의 *-ing*형은 각각 16a), 16b)의 형태로서 동명사가 아니다.

- | | |
|---------------|------------|
| 17) a. boxing | b. housing |
| painting | roofing |
| feeling | toweling |
| building | sweeting |
| meeting | inning |

그렇다면 동명사와는 어떤 차이가 있는가? 우선 파생접미사가 붙은 경우는 동명사와는 달리 전체의미를 예측하기 어렵다. 예를들어 *building*의 의미는 동사가 지칭하는 동착 자체가 아닌 행동의 구체적 결과를 의미하며 *housing*의 *-ing*는 사물의 집합을 의미한다.

다음에는 동명사 중에서 16c), 16d)의 구분을 살펴보자. 다음에서 볼 수 있듯이 동명사는 서로 상반되는 성격을 지닌 두 가지의 분포를 나타내고 있다.

- 18) a. his refusings of the proposal
 a'. his refusing the proposal
 b. the snatching of the money
 b'. snatching the money
 c. Kim's rapid typing
 c'. Kim's typing rapidly

18a, b, c)는 각각 명사적 동명사(nominal gerund)를 포함한 구문으로서 이때 동명사는 일반 명사와 마찬가지로 관사나 속격 대명사, 형용사의 수식을 받을 수 있고 복수형태를 취할 수 있다.⁸⁾ 이러한 사실은 명사적 동명사의 *-ing* 접미사는 파생접미사의 성격을 띠고 있다

8) 동명사를 명사적 동명사와 동사적 동명사로 최초로 구분한 사람은 Wasow-Roeper (1972)이다. (1982), 언어학사전, p.502 참조.

는 가정을 뒷받침 해준다. 더우기 복수형 어미를 취할 수 있다는 사실은 명사적 동명사의 *-ing*는 어휘목록의 다른 파생접미사와 유를 같이하는 것임을 입증해 준다.

그러나 18a', b', c')의 동사적 동명사(verbal gerund)는 파생접미사의 성격을 거의 지니지 못하고 있다. 나아가서 동사적 동명사의 형성은 어휘목록에서 이루어질 수 없음은 다음의 예를 보면 알 수 있다.

- 19) a. John's appearing to be a chic boy
 b. *John's appearings to be a chic boy
 c. *The appearing to be a chic boy is surprising.
 d. *John's appearance to be a chic boy

우선 구문 19a)는 문법적인 반면 19b), 19c)가 비문법적임은 19a)의 *appearing*이 동사적 동명사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왜 19d)의 구문은 비문법인가? 이것은 *to-* 부정사 앞에 명사가 왔기 때문이 아니다. 왜냐하면 *Bill's promotion to be the director*와 같은 구문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여기에서 우리는 동사 *appear*의 동사적 특성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성이 있다. 우선 19a)에서 기저구조에서 동사 *appear*의 주어는 *John*이 아니라, 하나의 문장 *John is a chic boy*이다. 19a)의 구문형태는 이동변형규칙을 적용한 이후에 결정된다. 따라서 동사적 동명사의 형태는 *post-lexical level*에서 정해지기 때문에 파생어 *appearance*가 이 위치에 올 수 없는 것은 어휘형태론의 구조상으로 볼 때 파생형태론은 어휘목록에서 이미 완결되었기 때문에 당연한 귀결이다.

마지막으로 16e), 16f)의 현재분사로서의 *-ing*형을 보자. 도표 16)에서 진행형 어미로서의 *-ing*형과 형용사적 성격을 띤 현재분사를 같은 범주에 넣은 것은 *playing children*과 *children who are playing, damaging remarks*와 *remarks which are damaging* 등의 의미상의 일치 때문이다. 다시 말해서 16f)의 기저형은 16e)라고 볼 수 있다. 형태론의 입장에서 볼 때 진행형을 나타내는 현재분사의 형성은 변형규칙과는 독립적이기 때문에 어휘삽입규칙 적용 이전에 어휘목록에서 이루어진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결론적으로, *-ing*형을 갖춘 단어의 여러 기능 중 동사적 동명사를 제외한 나머지는 어휘목록에서 단어형성을 한다.

5. 비교급(Comparative)과 최상급(Superlative).

다음 음운현상을 설명하기 위해서 Halle and Mohanan(1985)⁹⁾는 비교급, 최상급, 어미 *-er/-est*는 어휘목록의 level 1에 속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 | | |
|---------------|-----------|
| 20) a. longer | b. finger |
| longest | singer |
| younger | longing |
| youngest | singing |

20a)에서 어간 끝의 /g/가 항상 탈락하지 않는 반면 20b)에서는 /g/가 형태소 경계에 있을 때 탈락하고 형태소 내에서는 탈락하지 않는다. HM의 설명에 따르면 *-er/-est*는 어휘

9) 이후 HM으로 약함.

목록의 level 1에¹⁰⁾ 속하기 때문에 /g/-탈락규칙 (Domain: level 2)이 적용될 단계에는 bracket elasure 규약에 의해 어간과 -er/-est 사이의 bracket가 제거되므로 규칙적용이 bleed된다.

그러나 -er/-est가 level 1에 속할 수 없음은 다음의 예를 보면 알 수 있다.

21) ghastly/ghastlier	lovely/lovelier
friendly/friendlier	sprightly/sprightlier
deadly/deadlier	comely/comelier
timely/timelier	sickly/sicklier

위의 형용사 형성 어미 -ly는 어간의 강세형태에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어휘목록의 level 2에 속한다. 만일 HM의 주장대로 -er/-est가 level 1에 속하는 접미사라면 이 경우 level 간의 상충이 일어난다. 왜냐하면 level 2의 접미사가 level 1의 접미사를 선행하기 때문이다.

또 한 가지 HM의 주장에 대한 반증은 다른 불규칙적인 굴절어미 (Domain: level 1)들은 다른 단어형성규칙의 적용을 받지만 -er/-est 뒤에는 어떠한 형태소의 첨가도 허락되지 않는다. 예를 들어 불규칙 복수형은 *teeth marks*, *lice-infested*와 같이 복합어형성 규칙의 적용을 받는다. 만일 -er/-est가 level 1에 속한다면 이러한 현상은 매우 예외적인 것이다.

또한 다른 규칙적인 굴절어미는 level 4에 속하는데 -er/-est만은 예외적으로 level 1에 포함되는 것으로 생각하는 것은 자연스럽지 못하다.

그렇다면 -er/-est는 어휘형태론의 어떤 level에 속해야 하는가? 우선 형용사의 비교급, 최상급 형태가 -er/-est 굴절형태와 *more/most*를 이용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것은 통사적인 문제가 아니라 어휘목록에서 결정할 문제이다. 따라서 -er/-est 폭용은 다른 규칙적인 굴절어미와 마찬가지로 어휘목록의 level 4에 속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그렇다면 -er/-est 앞에서 /g/가 탈락하지 않는 것은 단순히 /g/-탈락 규칙에 대한 예외로서 다루는 것이 보다 나은 설명이 될 것이다. /g/-탈락현상은 다음과 같이 수정할 수 있다.

22) /g/-탈락규칙 (Domain: level 2)

/g/ → φ / /v/ _____

조건 : 오른쪽 환경은 -er/-est가 아님

II. 단어형성 순서의 문제점

어휘형태론의 level 간의 순서 규약에 의하면 어휘목록 level 1의 항목은 level 2의 항목을 뒤따를 수 없으며 level 3의 항목은 level 1이나 level 2의 항목을 선행하여 단어형성을 할 수 없다. level 4와 다른 level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이다. 그러나 앞 장에서 본 바와 같이 굴절형태론 특히 복수형 어미 -s와 속격 어미 's는 이러한 어휘목록의 level간의 순서를

10) 어휘목록에서 level의 수는 Kiparsky (1982a, b)의 3개의 level과 Mohanan (1981)의 4개의 level 등 차이가 있다. 최근에 HM은 영어음운현상 설명을 위해 4개 level의 타당성을 주장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HM의 주장을 따르고 있다.

위반하고 있다. 왜냐하면 level 4에 속하는 굴절어미가 level 3에서 단어형성을 하는 복합어 내부에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이러한 단어형성 순서의 모순에 대해 두 가지의 해결안이 제시되었다. 첫째는 Kiparsky(1982a, b)의 제안으로서 어휘항목의 '재분석'(reanalysis)의 개념(예를 들어 [_N[_Ngrammaticality]] > [_N[_Aungrammatical]ity])을 원용하고 소위 '중립접사'(neutral affix)가 복합어 내부에도 존재하고 복합어의 접미사도 될 수 있는 점을 감안하여 중립접사와 복합어를 동일한 level에 상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Kiparsky의 설명은 규칙적으로 굴절을 한 단어가 복합어의 입력부가 되는 현상을 설명할 수 없다.

두번째로 Mohanan(1981)은 level 2와 level 3 사이에 'loop'를 허용하여 level 3의 항목이 level 2 형태론의 입력부가 될 수 있는 길을 마련하고 있다. 마찬가지로 Mohanan은 굴절 형태론은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복합어의 굴절현상을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

23) dinner-out/dinners-out	passer-by/passers-by
hanger-out/hangers-out	runner-up/runners-up
looker-on/lookers-on	whipper-in/whippers-in

영어의 어휘목록을 네 개의 level로 구분할 경우는 Mohanan과 같이 loop를 허용할 수 밖에는 없는데 문제는 loop의 허용은 level 2와 level 3 사이에서 뿐만 아니라 복수 굴절과 속격 폭용을 설명하기 위해 level 3와 level 4 사이에도 허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물론 규칙적인 굴절어미 가운데 복합어의 입력부가 되는 것은 이 경우에 한한다.

그러나 Kiparsky(1982b)가 주장하고 있듯이 어휘형태론에서 loop를 허용할 경우 형태론을 각 level로 나누어 Domain을 항목마다 규정하는 어휘형태론의 기본원칙을 무너뜨리는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level 3와 level 4 사이에 이것을 허용한다는 생각은 커다란 문제점을 안고 있다.

따라서 실제로 loop가 단어형성에서 필요하더라도 최대한 억제 되어야 한다. 잠정적으로, 여기에서는 영어의 단어형성에서 loop는 level 2와 level 3 사이, 그리고 level 3와 level 4 사이에는 복수형 어미 -s와 속격 어미 -'s일 경우 허용 된다고 결론을 내리는 것으로 만족하겠다.

III. 결 어

모든 단어형성은 어휘목록에서 선결된 후 어휘삽입규칙의 적용을 받는다는 최근의 어휘형태론의 입장에 대하여 본 논문에서는 어휘목록에서 단어형성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중 일부, 특히 굴절형태론 중에는 post-lexical level에서 다루어야 한다는 사실을 보여 주었다. 즉 3인칭 단수 현재시제의 동사와 서술명사의 수일치, 주격, 목적격형태, 간접화법에서의 시제일치, 그리고 동사적 동명사의 -ing형은 어휘목록의 영역에서 벗어난다. 또한 roundsman, lion's share 등의 굴절어미가 복합어 내부에 나타나는 현상을 설명하기 위해 어휘목록의 각 level 간의 순서 문제를 재고해야 할 필요성을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단어의 구조와 문장의 구조 사이에는 차이점이 없다는 어휘형태론자들의 주장에 대해 다음과 같은 질문을 던져 보겠다. 단어가 독립체계(autonomous system)가 아니라면 왜 하나의 일관된 규칙체계를 하나의 형태소에서 시작하여 한 문장이 완성될 때까지

적용하지 못하고 단어형성규칙과 통사규칙을 구분하는가?¹¹⁾ 둘째, 왜 단어형성은 음운규칙이나 통사규칙과는 달리 소극적인가? 이러한 근본적인 문제점들의 규명은 현 어휘형태론의 큰 과제가 아닐 수 없다.

참 고 문 헌

- Adams, Valerie(1973) *An Introduction to Modern English Word-Formation*, Longman Group Ltd, London
- Aronoff, Mark(1976) "Word Formation in Generative Grammar," MIT Press, Cambridge, Massachusetts.
- Beard, Robert(1982) "The Plural as a Lexical Derivation," *Glossa* 16, 115-32.
- Bolinger, Dwight(1975) *Aspects of Language*, Harcourt Brace Jovanovich, New York.
- Chomsky, Noam(1957) *Syntactic Structures*, Mouton, The Hague.
- Chomsky, Noam(1965) *Aspects of Theory of Syntax*, MIT Press, Cambridge, Massachusetts.
- Chomsky, Noam(1970) "Remarks on Nominalizations," in R. Jacobs and P.S. Rosenbaum, eds. *Readings in English Transformational Grammar*, 184-221.
- Halle, Morris(1973) "Prolegomena to a Theory of Word Formation," *Linguistic Inquiry* 4, 3-16.
- Halle, Morris and K.P. Mohanan (1985) "Segmental Phonology of Modern English," *Linguistic Inquiry* 16, 57-116.
- Kiparsky, Paul(1982a) "Lexical Morphology and Phonogy," *Linguistics in the Morning Calm*, Hanshin, Seoul, 3-91.
- Kiparsky, Paul(1982b) "Word-Formation and the Lexicon," in F. Ingemann, ed. *Proceedings of the 1982 Mid-America Linguistics Conference*, Univ. of Kansas, Lawrence.
- Lieber, Rochelle(1981) *On the Organization of the Lexicon*, reproduced by IULC.
- Marchand, Hans(1969) *The Categories and Types of Present-Day English Word-Formation*, Verlag C.H. Beck, Munchen.
- Mohanan, K.P.(1981) *Lexical Morphology*, reproduced by IULC.
- Quirk, Randolph et als.(1985) *A Comprehensive Grammar of the English Language*, Longman Group Ltd, London.
- Radford, Andrew(1981) *Transformational Syntax*, Cambridge Univ. Press, Cambridge.
- Selkirk, Elisabeth(1981) *The Syntax of Words*, MIT Press, Cambridge, Massachusetts.
- Siegel, Dorothy(1979) *Topics in English Morphology*, Garland Publishing, Inc, New York.
- 이정민, 배양서(1982) 언어학 사전, 한신문화사, 서울.

11) Selkirk (1981: 2)의 다음 주장은 논리적 비약을 하고 있다.

It in fact seems possible to construe word structure as an autonomous system. In my view, the category Word lies at the interface in syntactic representation of two varieties of structure, which must be defined by two discrete sets of principles in the grammar. Yet I will argue that word structure has the same general formal properties as syntactic structure and, moreover, that it is generated by the same sort of rule system.